



산업분석 | 은행

Analyst

박혜진

02 3779 8634

oashes@ebestsec.co.kr

은행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_ '18 8월

8월 원화대출 연체율 0.61%(MoM +5bp, YoY+11bp) 기록

2018년 8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의 연체율은 0.61%로 전년동기대비,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6bp, 전년동기 대비 18bp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은 각각 2bp, 1bp 증가하는데 그쳐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대출은 7월부터 중소기업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7월에는 선박,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심의 신규연체가 발생한 반면 당월은 신규연체 규모 자체는 소폭 감소(7월 1.0조원→8월 0.9조원)하였다. 하지만 분기중 연체율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기말인 9월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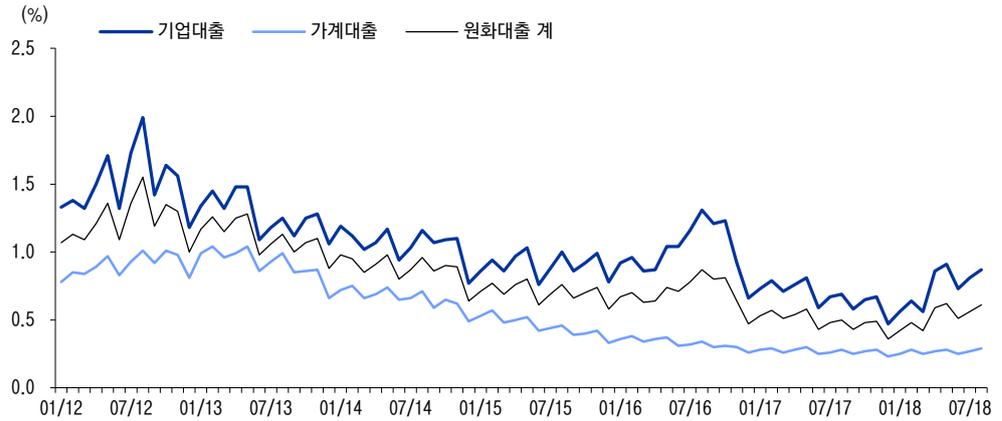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0.21%로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었지만 신용대출에서 전월 대비 5bp 상승하였다. 당월은 전월대비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였다. 신규연체채권규모는 1.4조원으로 전월 대비 0.1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술한 중소기업 신규연체채권 감소에 기인한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안정세 유지, 기업대출 점진적 상승

2017년 이례적으로 낮은 대손비용 사이클로 올해는 기저효과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연간 신규연체채권 규모는 14.9조원에 불과하였는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3조원에 육박하였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올 초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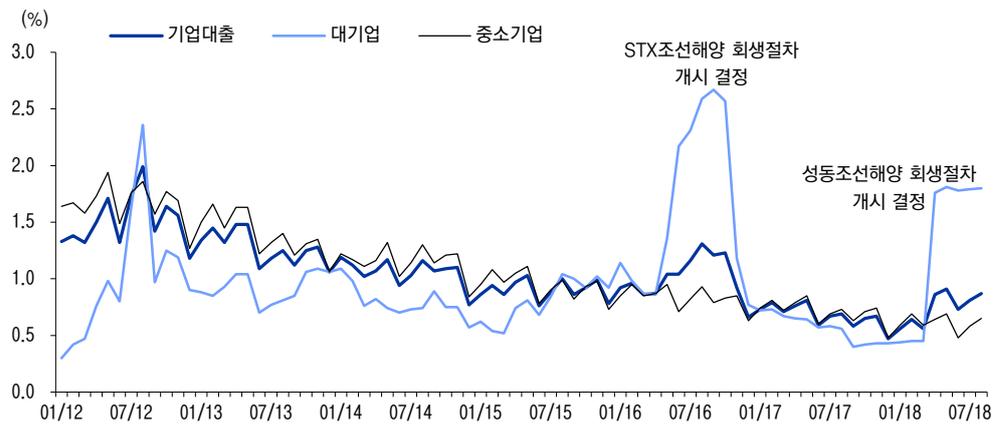
전체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올해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건전성이 높은 차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이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분모인 대출총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 정부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하락전환하고, 대출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주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림1 국내은행 원화대출 차주별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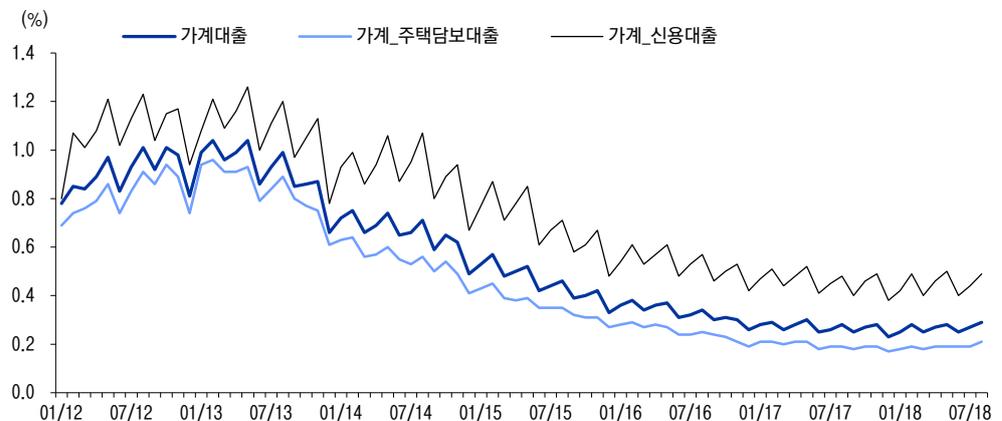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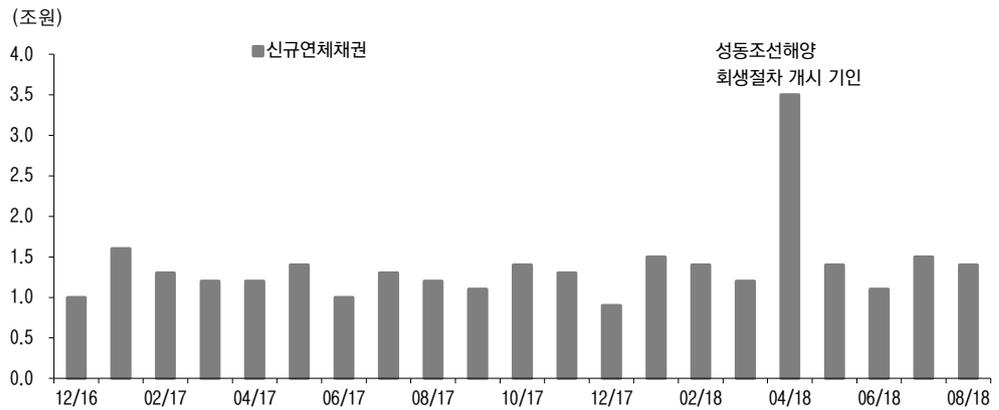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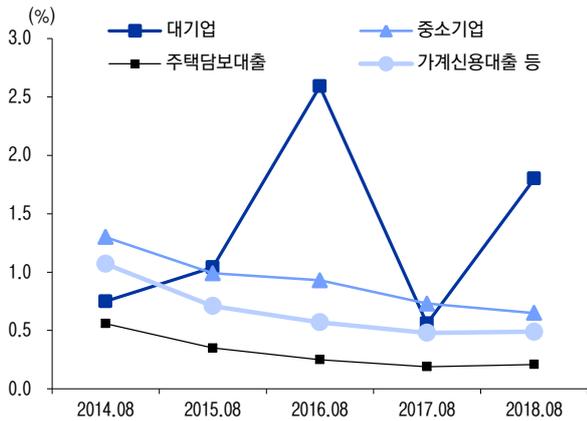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신규연체채권 월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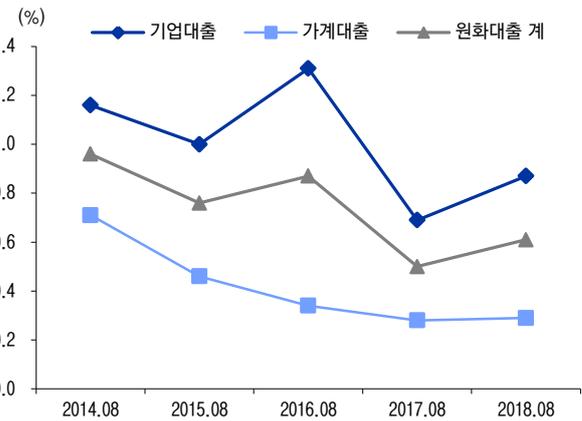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원화대출 최근 5년간 월별 대출 연체율 현황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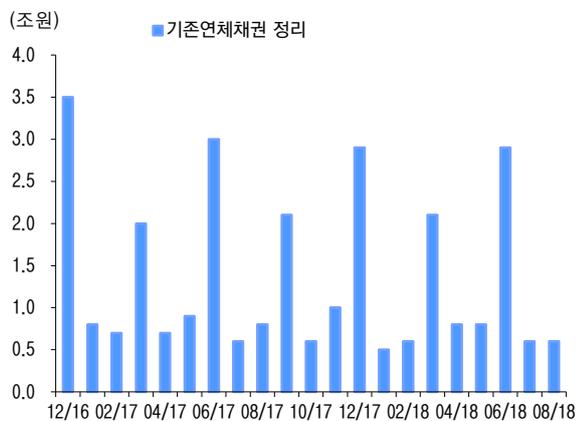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원화대출 최근 5년간 월별 대출 연체율 현황_2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연체채권 정리규모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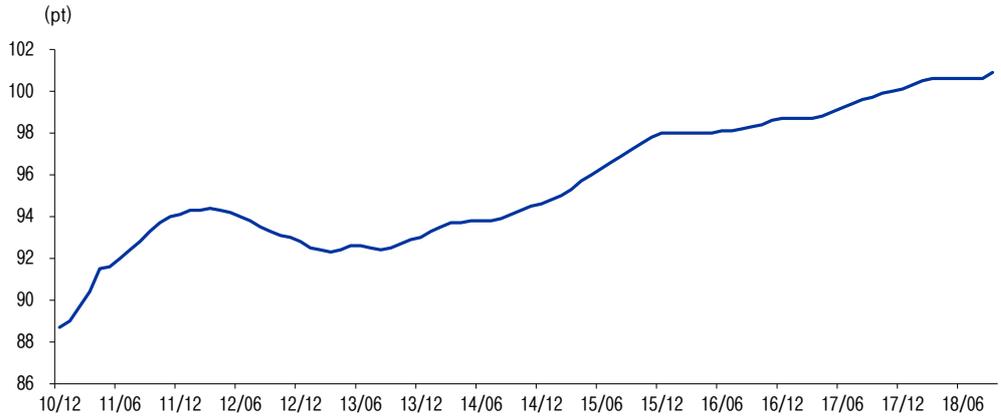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신규연체채권-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감액 월별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7.11=100

표1 원화대출 차주별 상세

(%, bp)	2017.08	2018.07	2018.08	MoM	YoY
기업대출	0.69	0.81	0.87	6.0	18.0
대기업	0.56	1.79	1.8	1.0	124.0
중소기업	0.73	0.58	0.65	7.0	-8.0
가계대출	0.28	0.27	0.29	2.0	1.0
주택담보대출	0.19	0.19	0.21	2.0	2.0
가계신용대출 등	0.48	0.44	0.49	5.0	1.0
원화대출 계	0.5	0.56	0.61	5.0	11.0

자료: 금융감독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혜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94.4% 5.6%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 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7. 10. 1 ~ 2018.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